

From : Kimbyung
Date : March 9, 2010
Subject : FW : 소망 / 헬렌켈러가 말한다

소망 / 헬렌켈러가 말한다.

먼저 아래 <표시하기> 클릭바람

-소망 -
표시하기 click



우리는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자 소망했던 일들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특별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보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는 모릅니다.

누구나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귀음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고!

내일이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뒤늦게나마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마음자리의 행복편지- 중